HCF MAGAZINE

2020 JULY & AUGUST

VOL.46 | WITH

화분

COVER STORY

화성의 소다미술관.
현재 '2020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시각 부문-커뮤니티 프로젝트 <모으고 잇다>가 진행 중이다.

CONTENTS

THE 담다 예술을 담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뮤지션 김창기

16 COLUMN
코로나와 미술계가 함께 '잘' 살기

20 TREND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유행

24 LIVE
한국화 작가 고은주

THE 가다 공간을 가다

30 WALK
섬의 양면성, 형도

34 FEATURE
여름 나기 문화 데이트

40 TICKET
<HAP 페스티벌>,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42 SKETCH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

44 CHECK
여름의 코스

THE 하다 함께 하다

48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이혜빈 대리

52 PLAY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여름

56 LIST
깍지 끼고 걷는 걸음
우리 둘이, 우리끼리

60 PEOPLE
화성인의 대답 화성인의 그림

64 CULTURE & ISSUE
7·8월 문화소식

68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70 REVIEW
편집후기

71 PLACE
배포처

WITH

이번 호는 우리가 함께해온 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Only from the alliance of the one,
working with and through the other,
are great things born

누군가와 함께, 또 누군가를 통해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Antoine de Saint-Exupery

소다미술관

A.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에디터 김현경 사진 김형욱

화성의 한 조각

‘공동체’를 키워드로 여러 예술가가 함께하는 소다미술관의 기획전시 〈모으고 잇다〉

THE 담다

INTERVIEW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뮤지션
김창기

COLUMN
코로나와 미술계가
함께 '잘' 살기

TREND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유행

LIVE
한국화 작가
고은주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뮤지션 김창기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라고 사랑을 노래하던 청년은 20여 년이 지나 "난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못난 것도 없는 평범한 남자야."라며 읊조리듯이 고백한다. 밴드 동물원으로 활동한 대학 시절을 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될 때까지 세월에 따라 자연스레 변해간 음악 안에서도 공통점은 엿보인다.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 그는 여전히 고통과 기쁨의 근원을 탐구한다.

글 이다은 사진 강현욱

"음악은 감정의 퍼즐을 맞추는 일 같아요. 감정에 맞는 멜로디를 실어서 곡으로 완성하는 작은 퍼즐이요."

만나 뵙게 돼서 기뻐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강연도 다니고 공연도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만 보고 있네요. 한가하게 지내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예정된 공연 〈THE H Concert〉가 연기되었다고 들었어요.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병원 지하에 공연장 겸 연습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했어요. 올 1월에 공연한 뒤에 한참을 못 하다가 드디어 화성에서 노나보다 했는데, 취소돼서 좀 섭섭하더라고요(웃음). 저나 밴드 친구들이나 공연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놀자고 하는 거라서요. 사실 지금은 공연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이번에 화성 독립운동 기념가를 작업하셨다고요. 화성시문화재단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요?
김재섭 예술진흥국장이 대학교 후배예요. 같이 공연도 여러 번 하고, 서로 공연할 때 게스트로 서기도 했어요. 친한 후배의 추천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서 맡게 됐죠. 노래는 다 나왔고 편곡 수정 중이에요. 제가 작곡, 김병철 시인께서 작사를 맡았고, 노래는 배우 박건형 씨가 불러요.

작업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을 생각했어요. 김병철 시인께서도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써주셨고요. 그런데 이 노래에 맞춰 아이들이 춤추고 플래시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멜로디를 제안하고 화성시에서 선택해 주신 노래로 작업했어요. 가사도 화성이라는 지역이 독립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했어요. 발안장터에서 시작해 제암리 뒷산에서 횃불을 든 이야기를 넣었죠. 춤을 추려면 신나야 하니까 발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었고요. 경쾌한 응원가 같은 곡이에요.

화성에 대해 좀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화성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있잖아요. 그걸 부각하려고 했어요. 곡을 작업하면서 알게 된 건데, 화성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독립군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화성이라는 지역이 독립운동에 불꽃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쁘실 텐데 개인 작업은 언제 하세요?
진료 보면서 틈틈이 해요. 이 곡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공연은 한 달에 한 번, 병원 지하 공연장에서 하거나 종종 불러주시는 곳에서 하곤 해요. 공연장은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예요.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리면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래요. 저는 어차피 흘러간 가수잖아요(웃음). 지금은 그냥 취미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솔로 앨범 [내 머리 속의 가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 그건 좀 아쉬운 앨범이에요. 감정 과잉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기대하셨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전 앨범 [하강의 미학]은 잘 되진 않았어도 평은 참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앨범과는 결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도 그 이후 꾸준히 앨범을 내고 계시잖아요. 음악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으니까요. 음악은 감정의 퍼즐을 맞추는 일 같아요. 감정에 맞는 멜로디를 실어서 곡으로 완성하는 작은 퍼즐이요.

저는 그 퍼즐을 노랫말에서 느껴요. 누군가 자기 얘기를 아주 자세히, 차분하게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 노래의 특징이 그런 구체적인 느낌이에요. 이야기가 있어야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멜로디에 말을 끼워 맞추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들어가야 해요. 주인공은 제가 될 수도, 가상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죠.

실용음악과에서 작사를 가르치신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수업 내용이 궁금해져요.

시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요. 다만 노랫말은 틀이 있고 리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죠. 시보다는 훨씬 더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듣는 이들에게 스냅숏 같은 걸 줘야 해요. 그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노랫말은 시의 CF 버전 같기도 해요. 노래 한 곡에서 네 마디 혹은 여덟 마디마다 하나의 감정이 담기는데, 같은 감정을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도입부에 넣어 호기심을 유발하고 운율과 리듬이 맞도록 모아줘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쭉 적고, 그 안에서 재료를 뽑아 쓰고 장면별로 편집해야만 구체적인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곡에 가족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노래를 만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이에요. 그만큼 지금 제 삶에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가족들이 제 음악에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요. 제 노래 들으면 "요즘 이런 노래 안 돼~" 그래요(웃음).

마음으로는 응원하실 거예요. 곡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노랫말이나 멜로디 중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는지에 따라 작업 순서가 달라져요. 제 노래 중에 '용을 잡는 기술의 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강연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데 지하철이 길잖아요. 그래서 용이 떠오르고, 무용지물이라는 사자성어가 연달아 떠올랐어요. '아, 나는 음악적으로 무용지물이구나. 한때는 잘나갔었는데. 한때는 내가 용을 잡는 달인이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죠.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따라 곡이 써지기도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해소하기도 할 것 같아요.

감정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림, 골프, 테니스처럼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건 내가 뭔가 만들고 있다는 성취감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는 직업이 곡 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고통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수월하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반대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마이너스가 많아요.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때 굳이 가수에게 가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 사람 가수인데 진료를 제대로 보겠어?'라고 의심하실 수 있죠.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람을 이해하고 심리를 더 알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의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어쩌다 보니 의대까지 가서 가장 의사 같지 않은 과를 골랐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왠지 멋져 보였어요. 정신과 의사 중에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고통과 슬픔, 괴로움의 근원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궁금했어요.

생각과마음의원이라는 병원 이름은 무척 직관적이고 따뜻해요.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ADHD와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 진료를 보고 있어요. 병원 이름을 '정신과'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기 싫어하니까 아내가 좀 더 부드러운 이름으로 하자고 해서 지었어요. 둘러보시면 병원 곳곳에 감정이 없는 그림들만 걸어두었어요. 이미 자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저 평온한 상태만 있는 중립적인 그림들을 골랐죠.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은 처음 와봤는데 그림 하나를 걸 때도 환자들을 배려하는 곳이군요. 99년에 개원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인식이 많이 좋아졌나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정신과는 아직 혐오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는 비슷해요. 마음의 감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상담센터, 한의원에 갔다가 정 안 되면 찾는 곳이 이곳이에요. 고정관념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이곳에서는 주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DHD나 강박증은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약을 처방해요.

이 직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환자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커요.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는 점도 좋고요.

환자에 대한 의무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상담은 대부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근원을 찾아서 해소하거나, 해소할 수 없을 만큼 깊다면 피해 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걸 실행해 옮기려면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를 주는 친절한 선생님, 그게 의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받고 싶어 하시는 만큼 드리려고 해요. 한쪽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분명 그분들이 해내야 하는 몫이 있으니까요. 세상을 구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사로서 임해요.

음악가와 의사, 무엇으로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한가요?
예전에는 의사가 더 편했는데 지금은 둘 다 괜찮아요. 가수는 남들에게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못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오디션 보는 사람처럼 긴장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긴장은 사라졌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어디서든 불러주시면 공연하러 나가야죠. 병원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잖아요(웃음). 참, 지금은 칼럼 쓴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름이나 가을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보같이 살 필요 없이, 남들이 시키는 거 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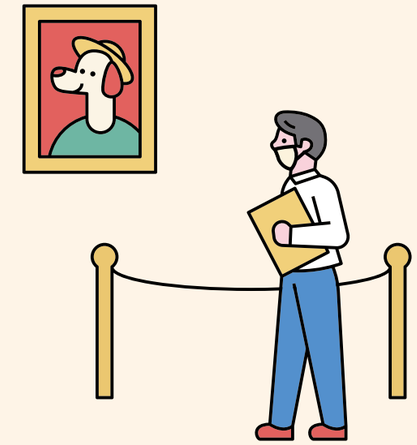
COLUMN

코로나와 미술계가 **함께 '잘' 살기**

여전히 코로나는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이 다시 올 수 없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어떻게 코로나와 '잘' 살 것인가가 관건이다.

글 이소영 작가

"이젠 코로나를 극복한다기보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해."
친구의 말에 한참을 멍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항공, 여행, 문화계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미술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나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 예정된 강의는 모두 취소되었다가 5월이 돼서 다시 잡혔지만,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때문에 다시 7월 이후로 미뤄졌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취소보다 잦은 변경이다. 행사나 강연이 취소되면 차라리 다른 일을 찾을 텐데, 매일 여러 기관과 일정을 변경하고 조율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 지치기 시작하는 여름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지인들이 실직을 하거나 휴직을 했다. '2020 공연예술 통합예술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연예술업계 매출액은 약 400억 원이었지만 4월 말에는 36억 원으로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많은 미술관과 문화 시설이 휴관하고, 공연과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계의 창작 활동도 멈췄고, 결국 많은 문화예술인의 생계도 타격을 입었다. 당분간 문화예술계는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야 한다. 방법은 그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미술계와 미술교육계가 잘 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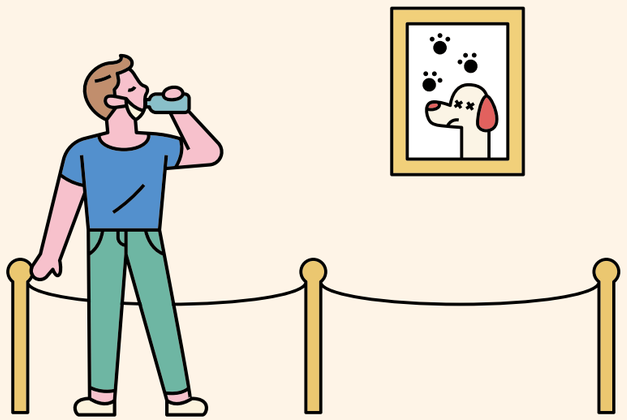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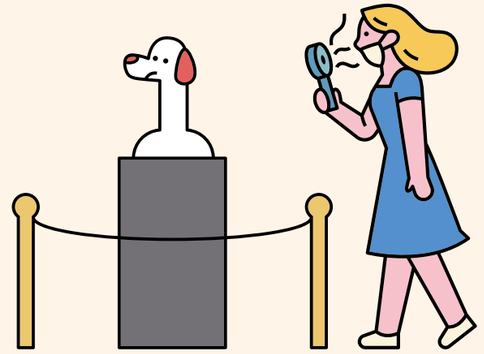
코로나와 온라인 미술 시장

2020년, 세계 최고의 미술 장터 스위스 아트 바젤은 50주년을 맞이해 큰 행사를 준비했다. 매년 1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큰 미술 행사이기에 과연 아트 바젤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바젤 측은 "보건상의 위험과 대륙 간 여행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은 내년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면서 6월 진행 예정이던 행사 취소를 알렸다. 또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부터 스위스 아트 바젤 VIP 온라인 오프닝이 시작된 것이다. 많은 미술 애호가가 접속해 각 갤러리가 어떤 작품을 바젤에 소개하는지 관람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스위스에 가서 작품을 직접 봤을 것이다. 올 2월만 해도 이런 일상은 상상할 수 없었다. 작품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느냐 했지만 어느덧 이 프로세스가 익숙해졌다. 아트 바젤 VIP팀은 갤러리와 컬렉터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여러 갤러리들은 아트 바젤 사이트를 통해 컬렉터나 미술 애호가들이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준비를 했다. 독일의 에스더 쉬퍼 갤러리는 몇몇 소그룹의 컬렉터들과 실제 아트 바젤에 가지고 나갔어야 할 작품을 베를린의 갤러리에 전시해서 핸드폰 영상통화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축구 경기처럼 이원생중계를 진행했다. 이제 온라인에서 미술 작품을 보고 영상통화로 갤러리 오프닝을 진행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고, 핸드폰을 확대하지 않거나 영상 관련 앱을 깔지 않으면 평범한 관람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미술 작품을 본다? 1년 전만 해도 정말 바쁘거나 갈 수 없는 전시에 국한된 이야기였건만, 어제도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핸드폰으로 작품과 가격을 보니 편한 면도 참 많았다. 갤러리마다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작품에 대해 물어보고,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던 그 많은 과정이 불필요해졌다. 클릭 한 번에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얼굴을 내비치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과정 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판매까지 연결이 잘되는 작품들도 생기니 온라인 뷰잉으로 미술 시장이 살아남는 방법에 희망이 생긴 듯하다. 전시 공백을 온라인 뷰잉으로 메꿔서 다행이지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생긴다. 전시장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소리와 대화, 눈앞의 도슨트가 작품을 설명해 주는 소통은 여전히 그립다.

코로나와
미술 교육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분야 중 교육도 큰 몫을 차지한다. 앞으로 20학번은 오래 회자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졸업식을 하지 못했고, 입학식도 못 했으며, 대학에 입학하면 신나게 떠난다는 OT도 없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8세 어린이들은 2월 이후 3개월 이상 '유졸(유치원 졸업생)'로 남아 학교에 갈 책가방 짐만 여러 번 쌌다 풀었다. 많은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다양한 곳에서 산만하게 각자 활동을 하자 출석 체크와 인사만 하느라 한 시간이 흘러버렸다며 온라인에서 수업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자신의 유튜브에 상황을 올렸고 많은 사람이 이에 공감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과목은 그나마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예술 과목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미술은 아이마다 다른 미술 재료를 선택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미술 교육을 진행하려니 정해진 단순한 재료들의 반복밖에 되지 않았다. 창의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육이 색종이 따라 접기, 선생님 따라 만들기 등의 이해와 기술 위주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많은 교육인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다행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중 예술 교육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모두의 예술놀이'라는 주제로, 미술이나 음악 교육인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또한 '예술교육 연구활동 긴급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는데, 코로나로 침체된 예술교육계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 계획안을 모집해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미술 테라피나 디지털 교육 연구, 예술 교육 전문가 인터뷰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예술 교육인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와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너의 꿈속에서', 〈맘마미아〉의 'I Have A Dream' 등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미술사 강의 등이 온라인 교육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미술 교육계에도 조금씩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예술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교육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소통하고 표현해야 하므로 온라인에서 각기 다른 감수성과 개성을 살린 교육을 진행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큰 주제에 따른 정보나 지식은 교류하되, 결국 세부적으로 어떻게 감성을 나누고 쌓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온다는 그 말을 여전히 믿고 싶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미술 시장과 미술 교육계가 통찰을 발휘한 아이디어들로 조금씩 녹고 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세심하게 얼어붙은 땅을 녹여가며 다시 미술인과 미술 교육인이 활동할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빅피쉬아트, 신나는 미술관의 대표로 일하며 다양한 연령과 분야의 사람들에게 미술사와 현대미술에 관한 강의를 하며 글을 쓴다. 지은 책으로는 《출근길 명화 한 점》, 《미술에게 말을 걸다》, 《그림은 위로다》,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등이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유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밀집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이 중단되고, 그 대안을 찾으면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과 함께 새로운 유행이 찾아왔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새로운 트렌드
온라인 캠페인의 등장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다중이용 공공시설 중단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이게 되는 공연, 축제,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대부분이 중단되었다. 몇몇 행사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을 강화하며 예정대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공연장이나 전시장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연 및 문화예술 분야는 코로나19로 큰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예술인 지원 사업 등 여러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중단된 이 시점에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문화예술을 현장에서 즐길 수 없는 관객들의 아쉬움도 크다. 계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문화예술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안을 찾고,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고화질·고음질의 공연 실황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예술인들과 관객들이 현장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소통할 새로운 트렌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및 릴레이 챌린지가 시작되었다.

ⓒ HMS Media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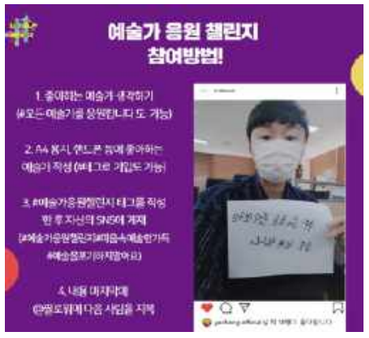
브로드웨이에서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

최근 브로드웨이 배우들의 '뮤지컬 넘버 싱어롱'이 온라인에 울려 퍼지고 있다.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뮤지컬 〈뷰티풀: 더 캐롤 킹〉의 배우들은 'You've Got a Friend'를 각자의 집에서 노래한 영상을 공개했다. 뮤지컬 〈뷰티풀〉은 1960~70년대의 히트 싱어송라이터 캐롤 킹의 자전적 이야기로, 브로드웨이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작품이다.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주인공 제시 뮬러를 비롯한 〈뷰티풀〉의 배우들은 노래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액터스 펀드에 기부를 독려했다. 배우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 "우울하고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미국 유명 방송사 ABC는 스페셜 방송으로 〈디즈니 패밀리 싱어롱〉을 방영한 후 일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여해 디즈니 음악을 부르며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이 스쿨 뮤지컬〉의 배우들은 따로, 또 함께하며 밝고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 'We're All In This Together'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지난 12월 초연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재기드 리틀 필〉의 출연진들은 극 중 넘버 'Thank U'를 함께 불러 코로나19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아쉽게도 이 작품 또한 브로드웨이 셧다운으로 공연이 중단되었다.

따로 또 같이 참여형 릴레이 챌린지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덕분에 챌린지'가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사진을 SNS에 업로드 후, 다음 캠페인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집콕(집에서 즐기는) 놀이 챌린지, 화훼농가 살리기 챌린지 등의 코로나 극복 캠페인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문화예술계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춘천시립합창단원들은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 이겨내자고 노래하고, 춘천시립교향악단은 힘내자는 메시지와 함께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E단조 '신세계로부터' 1악장을 연주하는 영상을 공개해 감동을 전했다. 최근 KBS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 뮤지션, 노리플라이 권순관의 무대에서도 새로운 유행이 돋보였다. 노리플라이의 공식 SNS 계정에서는 권순관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이승환의 '가족'을 부를 예정이라며, 사람들이 곡의 코러스 부분을 부르는 영상 또는 음성을 보내는 방식으로 관객 참여형 '랜선 코러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뮤지션의 무대는 언택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코로나19로 무대가 사라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술에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가 응원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에 대한 관심이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이어져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갈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종이와 스마트폰 등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적어, 그 종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예술가응원챌린지 #마음속예술한가득 #예술을포기하지말아요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업로드하고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사람을 지목한다.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난 이 새로운 유행이 사회에도, 예술인에게도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이 되길 바란다.

ⓒ KBS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꽃잎에 담긴 염원의 마음
한국화 작가 고은주

꽃과 엄마, 너무도 흔해서 자주 외면하는 이름들. 고은주 작가는 장맛비 속에서 암술과 수술을 지키다 홀로 떨어진 꽃잎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작품을 남겼다. 그가 정면으로 마주 보고 그린 꽃잎에는 비단 엄마의 이름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여성의 이름이 담겨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그림을 그리며 매일 염원하는 두 손을 모은다.

글·사진 김건태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릴 적 미술 학원에서 동양화, 조소,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즐겁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림은 저 자신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예술이었죠.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해 그림을 배우고, 2007년에 석사를 졸업하며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한국화라고 하면 흔히 동양화의 연장선에서 사군자나 문인화를 생각하는데, 저는 비단에 담채(수채)를 이용한 채색화를 그려요. 꽃을 통해 모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하죠. 어릴 때부터 여성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여성이라는 말에 덧씌워진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제 작품 속 꽃을 통해 주체적이되 너무 공격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여성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초기에는 화선지를 겹쳐 만든 장지 위에 그림을 그렸다면, 후에는 점차 비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흔히 생각하는 매끄러운 비단은 아니고 한복에 사용하는 투명한 천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탕이 투명하기 때문에 앞뒤로 채색을 하면 그림에 입체감이 생기게 되죠. 비단은 종이보다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반면,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작업에 들어가야 해요. 제 작업 방식은 물로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담채인데요. 여러 번 중첩되게 채색을 해도 그림의 투명함이 유지되어, 특유의 담담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지난 14년간 작품 활동을 하며 그림의 소재도 변해 왔어요. 엄마를 생각하며 꽃잎을 정면으로 응시한 작품부터, 결혼이라는 큰 사건을 앞에 두고 물방울로 제 감정을 표현한 작품,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주는 내용을 담아 그린 작품, 최근에는 전통 부적을 변주해 그린 작품과 페이퍼 커팅을 이용한 설치 작업까지. 같은 꽃을 다뤄도 개인적 사건에 따라 의미와 상징을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기본적으로 꽃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반면에 꽃이라는 소재가 흔하다 보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단점 또한 있어요. 다른 소재로 바꿔볼까도 고민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다시 꽃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웃음).

당신의 대표작은 무엇인가요?

최근 전통 부적에 관심이 많아서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삼재소멸부'는 세 가지 악재를 소멸한다는 의미를 담은 부적인데요. 호랑이 두 마리와 머리 세 개 달린 매의 형상을 꽃으로 그려 넣었어요. 동양적인 소재지만 너무 동양적인 표현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벽에 걸어놓을 작품으로 그리되, 염원하고 기원하며 복을 부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하나, '영원한 어머니의 표상_들장미'는 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작품으로, 오래된 작업이긴 하지만 가장 애착이 가요. 장맛비가 지나간 다음 날, 도서관 앞 만신창이가 된 장미꽃밭을 봤어요. 하지만 어지럽게 흩어진 와중에도 꽃의 암술과 수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암술과 수술을 감싸다 떨어진 꽃잎이 저희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엄마의 희생을 되새기려 작품을 그렸죠. 꽃잎을 정면에서 마주해 그림을 그린 것은 엄마의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찢긴 꽃잎을 재생하고 싶은 마음으로 잎맥을 따라 하나둘 작은 점을 찍어 내려갔죠. 사람들이 제 작품을 통해 모성의 숭고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작업을 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모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한 고민을 통해 제 자신과 가족의 복을 함께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앞으로도 따뜻함과 배려로 공존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어요. 그리고 후에는 여성의 삶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 고은주, 삼재소멸부

ⓒ 고은주, 영원한 어머니의 표상_들장미

THE 가다

WALK
섬의 양면성, 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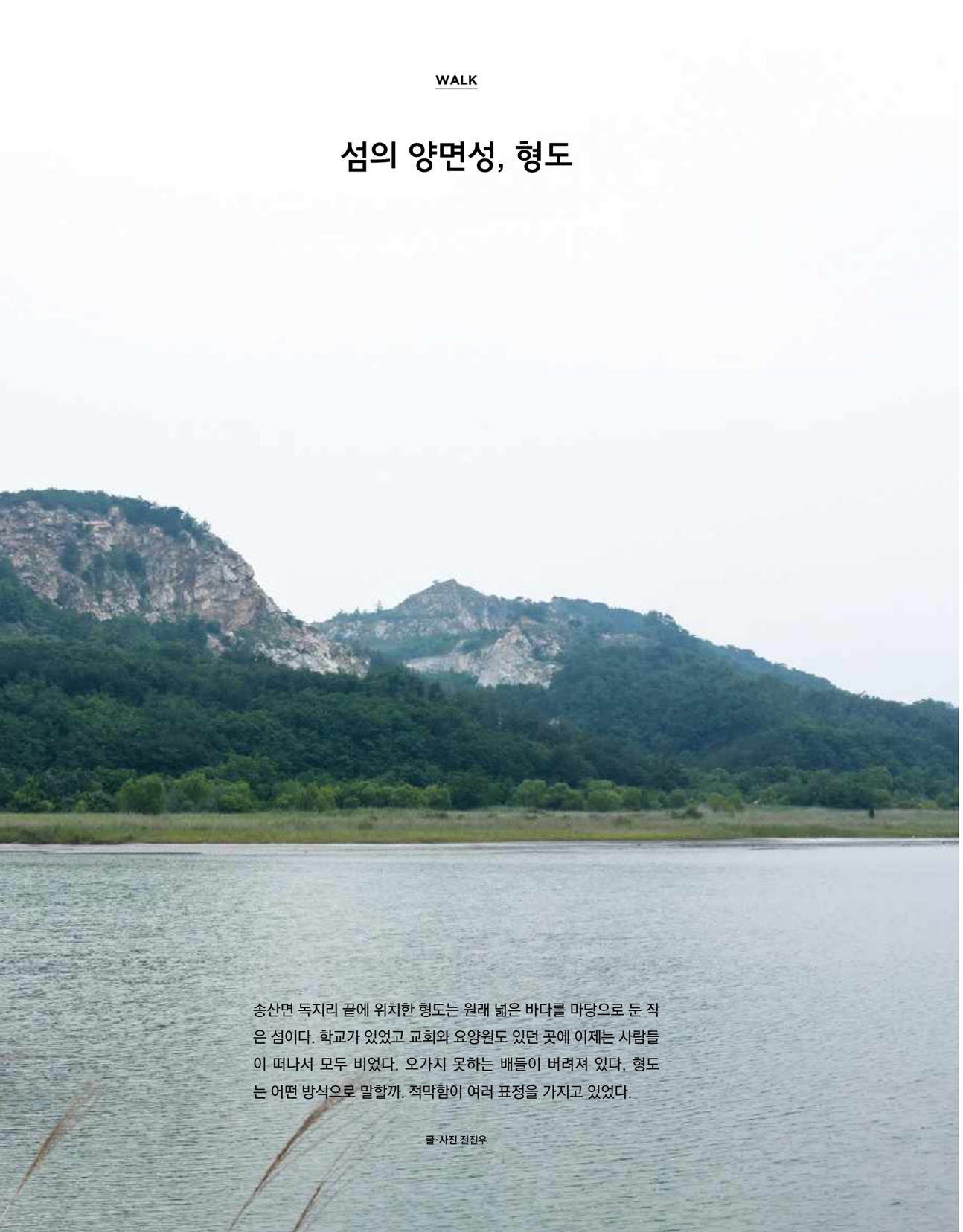
FEATURE
여름 나기 문화 데이트

TICKET
<HAP 페스티벌>,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SKETCH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CHECK
여름의 코스

섬의 양면성, 형도



송산면 독지리 끝에 위치한 형도는 원래 넓은 바다를 마당으로 둔 작은 섬이다. 학교가 있었고 교회와 요양원도 있던 곳에 이제는 사람들이 떠나서 모두 비었다. 오가지 못하는 배들이 버려져 있다. 형도는 어떤 방식으로 말할까. 적막함이 여러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글·사진 전진우

걸어서 들어가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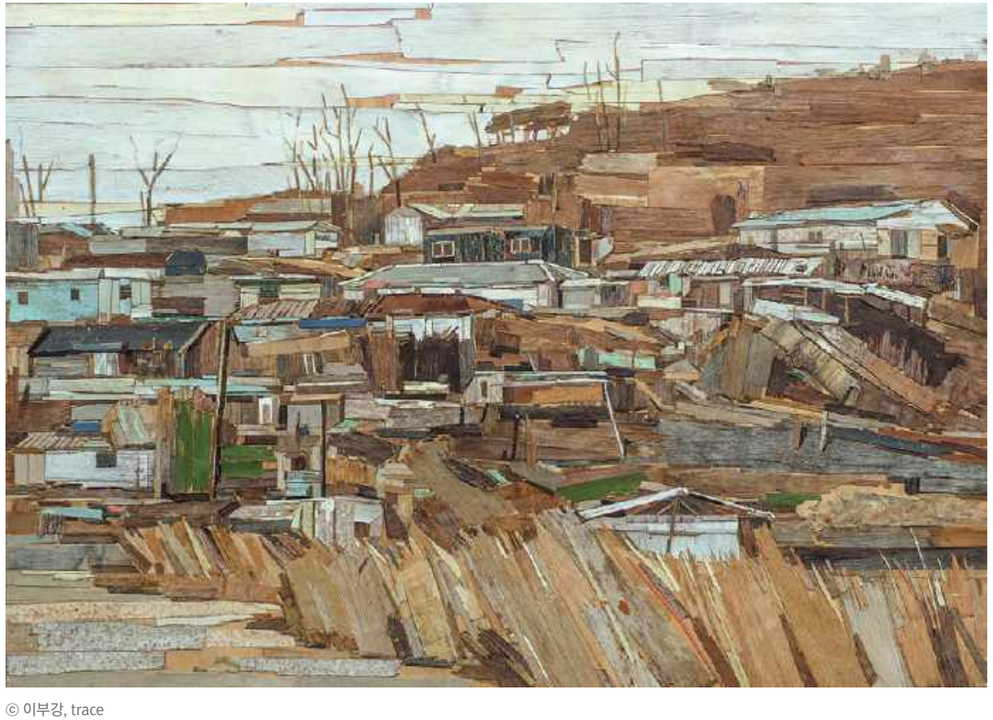
형도에 입장하려면 지나야 하는 2킬로미터가량의 비포장도로는 군데군데 구덩이가 파여 있어 자동차로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는 길이었다. 원래 바다가 있어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던 섬에 시화호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길이 생긴 모양이다. 이제는 아무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형도 중앙에 140미터가량 솟아 있던 계명산을 일부 부숴서 바다를 막아 시화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제 몸의 조각으로 섬을 가두는 모습을 지켜본 셈이다. 인간이었다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이다. 형도의 첫인상은 시끄러운, 그런 고통의 소리였다.

섬에 닿자 마을이 보였다. 누군가 살던 집들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염소와 오리,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는지 내가 차에서 내리자 우르르 달려왔다가 다시 도망가 버렸다. 혼자 깊숙이 들어가 보기가 꺼려지던 섬의 어두운 풍경이 동물들 덕분에 한껏 밝아졌다. 한쪽 길은 막혀 있고 다른 쪽 길은 섬 반대편까지만 이어져 있었다. 서로 엉켜서 자라는 풀들, 부수다 만 바위들, 흙먼지가 날리며 조금은 어수선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흔적이 없어서인지 나름 그곳만의 평온함이 있었다. 재개발이 확정됐다는 표식으로 건물들 곳곳에는 파란 원이 그려져 있었지만, 누군가는 아직 살고 있고 또 이 헛헛한 모습 자체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떠나야 하는 장소가 다른 어떤 이에게는 찾아가 볼 만한 장소가 된다. 형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다.

움직이는 풍경

이부강 작가를 통해 이 섬을 알게 되었다. 작가는 2015년부터 형도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철거되는 지역을 방문해 폐허에 남겨진 베니어합판들을 뜯어 와 작업 소재로 삼는 작가. 사라져 가는 풍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고른 물감이 바로 오래된 합판들이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면 생활 속에서는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 매 순간 인식하며 살기 어렵지만, 벽과 문, 가구로 사용되었을 합판들에는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을 것이다. 작가의 고민스러웠을 소재 선택을 상상해 보는 것이 그의 작품으로 들어가 보는 일을 수월하게 해준다. '무빙 랜드스케이프Moving landscape.' 그가 작업들에 붙인 이름에서도 눈에 보이는 풍경을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형도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작가가 왜 이 섬을 마음에 두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제 작업은 흔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은 작가의 내밀한 개인 소사이기도 하거니와 동질의 의식을 함유하는 공동체의 서사이기도 하죠."

그는 사라져 가는 공간의 작은 흔적에서 시작해 개인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기억 한 부분으로 향한다. 폐허에서 찾은 파편들을 회화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힘이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 '공동의 기억'은 실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술 작품을 보며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을 지난 기억들로 되감기해볼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까. 작가는 형도에서 구한 재료들로 그리겠지만, 파편들은 형도를 넘어 모든 사라진 장소를 가리킨다. 화성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버려진 형도에 가서 스러진 풍경 그 자체를 보라고 말했다. 채석장의 몰골과 식물들로 뒤덮여 버린 건물들, 끊어진 길. 그 역시 그저 그런 것들을 보러 형도를 찾는다고. 한 시간 남짓 섬을 돌아다니자 어지러운 풍경들은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다.



© 이부강, trace

폐허의 시간

한 시간 만에 무뎌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문득 망가짐 자체가 주는 단순한, 하지만 마주하기 괴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막한 폐허에서는 괴로움의 소리가 들리지만 계속 보다 보면 금세 무뎌진다. 무뎌지기 전 잠깐 동안 폐허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러려고 존재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파괴한다. 본성이 그렇다고 해도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폐허 앞에서 내가 느낀 불쾌함과 공포 같은 것들은 아마 외부에 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인간이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모하고 버릴 테니까. 폐허는 곧 나의 지나온 길, 앞으로 나아갈 길일 수도 있다. 돌아서거나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상을 남기고서 폐허는 또 새롭게 가꿔지거나 혹은 아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 본질이 담긴다면,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폐허의 시간이 아닐까. 형도가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로 거듭나듯, 수많은 폐허는 또다시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가꾸는 존재들이니까. 화장을 하듯 두텁게 덮어버리면 우리는 또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형도에 막 도착할 무렵에 나처럼 외부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몇몇 마주쳤다. 그들은 왜 여기에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형도를 빠져나갈 땐 그들과 나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있었다. 다녀간 사람들 중 일부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낯선 풍경을 산책하는 기쁨을 누리다 가는 이도 있을 것이다. 형도에 처음 와본 사람인데도 자신이 망가트리는 데 일조했다는 기분을 느끼며 돌아가는 이도 있었을까? 형도는 예술 작품처럼,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다들 좀처럼 말이 없었다.

이부강 작가

경기대학교, 홍익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7번의 개인전과 6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버려진 동네의 건물에 붙어 있던 베니어합판이 작품의 소재가 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칠이 벗겨진 낡은 파편들은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작가는 그 다양한 형태에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FEATURE

무더위를 이겨내는
여름 나기 문화 데이트

마스크도 답답한 계절, 여름이 왔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일상도 일상 같지 않게 멈춰 있다. 여느 때의 여름처럼 훌훌 떠나 즐기는 여행이 어려워진 지금, 시원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집 앞 가까운 공방으로 떠나는 여름 나기 문화 데이트를 즐겨보자.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46호에 실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름과 어울리는 나만의 소품 만들기

은 액세서리 공방

ⓒ 은제나

은 액세서리는 어딘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번 여름에는 애인, 부모님, 동생,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과 커플 아이템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화성 반송동에 있는 '은제나'는 '언제나 함께하며 곁에 머물다'라는 뜻의 은 액세서리 공방으로, 선생님과 상의해 원데이 클래스로도 반지, 목걸이, 팔찌, 펜던트 등의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직접 디자인하고 가공해 각인까지,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시원한 여름 아이템을 만들어보자.

언제 나만의 여름 아이템이 필요할 때
어디서 은제나(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1길 26-22, 101호)
누구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문의 카카오톡 '은제나'

휴양지 느낌 가득한

라탄 소품으로 여름철 집 꾸미기

ⓒ 느리게감기

집에만 있는 요즘, 처음으로 우리 집의 모습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지만, 인테리어를 모두 바꾸기에는 부담스럽다면 라탄 소품 만들기를 추천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조명, 바구니, 장식물 등 취향껏 라탄을 즐겨보자.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라탄 만들기 수업은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제 똑같은 집이 지겨워졌을 때
어디서 느리게감기(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88)
누구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와
문의 네이버 톡톡 '느리게감기'

기분 전환을 위한

배스 밤 만들기

ⓒ 굿밤랩

무더운 더위에 짜증나고 기력이 없다면 기분 전환에 좋은 아이템, 배스 밤(입욕제)을 만들어 사용해 보자. '굿밤랩'은 천연 유래 성분과 실제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나에게 맞는 성분들을 조합해 준다. 보기에도 예쁘지만 나에게 맞는 컬러와 향기를 조합한 배스 밤은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기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언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디서 굿밤랩(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73)
누구와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나와
문의 카카오톡 '굿밤랩 Goodbomb Lab'
TIP 배스 밤은 여름철 호캉스에 챙겨 가도 좋은 아이템이다.

아이들과 하는 집콕놀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어디서나 함께’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꿈 많은 어린이가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개관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어디서나 함께’를 공개했다. ‘어디서나 함께’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의 특색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은 어디서나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문화유적스튜디오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 싶은 아이를 위한 ‘찰흙으로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만들기’ 콘텐츠와 고생물학자에 관심 있는 아이를 위한 ‘공룡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만들기 체험도 소개한다. 해당 영상에는 준비물부터 만들기 과정까지 세세히 공개되어 있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집에서 재미있는 직업 체험을 해보자.

.

언제 다양한 직업이 궁금할 때
어디서 유튜브 채널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누구와 꿈 많은 아이들과
TIP 아이와 영상을 보기 전,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만들기 체험을 시작해 보자.

ⓒ 향기가게

여름철 아이들을 위한 공방 체험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

여름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모두가 필수로 구비한다는 모기기피제. 시중에 파는 모기 퇴치 스프레이와 버물리 연고가 연약한 아이들의 피부에 독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 화성의 천연 화장품 공방을 찾아보자.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 부모님은 물론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만든 천연 모기기피제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보자.

.

언제 슬그머니 들려오는 모기 소리가 두려울 때
어디서 향기가게(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41, 1층)
누구와 심심해하는 아이들과
문의 031 613 6355, 010 6350 6676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 캔들 만들기

이번 여름은 아이들과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날 수 없으니, 시원한 실내에서 나만의 작은 바다를 만들어보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바다 캔들은 다양한 색의 모래를 깔고 아기자기한 물고기와 각종 수초 피규어를 배치해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다. 거기다가 좋아하는 향까지 첨가하면 근사한 나만의 작은 바다가 탄생한다. 완성된 캔들을 방 한쪽에 두고 바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태워보자.

.

언제 저 멀리 바다로 떠나고 싶을 때
어디서 지니아솝(경기도 화성시 남여울1길 3, 301호)
누구와 바다로 떠나고 싶은 아이들과
문의 010 2426 7698

ⓒ 지니아솝

화성시문화재단의 새로운 시도
<HAP 페스티벌>,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HAP 페스티벌〉 개막작 인터뷰
거리예술가 이철성, 안무가 이양희, 사진가 안웅철, 기획자 장수혜

화성시문화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예술 향유를 지속 할 수 있는 온라인 축제 플랫폼인 〈HAP 페스티벌〉의 개막작 〈포스트 코로나, 예술은 여전히〉를 공개하며 축제의 비대면 대안을 발 빠르게 제시해 문화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동체를 치유하는 시민 참여 퍼레이드의 국제적 문화예술 교류 또한 힘찬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글 축제기획팀 사진 제공 축제사무국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산업 중 하나는 바로 문화예술 분야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각종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실시간 공연 실황 중계 등 비대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문화예술 종사자 역시 랜선을 통해 극복 방안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코로나 시대 이전, 단순히 현장 공연에 대한 서브 플랫폼으로 인식되던 온라인 플랫폼이 현재는 메이저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물론 관객과 교감을 나누고 현장의 에너지를 몸소 느끼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온라인의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나 예술단체, 혹은 메이저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큰 비용을 들여 정교한 촬영 장비를 갖추고 공연을 진행하는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면 대중이 이를 관람하고 공유하는 시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축제의 장

문화재단은 현 위기 상황에서 문화의 향유와 예술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고려한 기준은 '지속 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공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현장 공연을 대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은 인지도와 성공 여부에 있어 그 성과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화성시문화재단은 〈HAP(合, Hwaseong And People)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 교류가 가능한 이 페스티벌은 온라인에 가상 축제 공간을 마련해, 단순히 대면 공연의 대체재가 아닌 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기획되었다. 국적과 나이를 불문한 모든 분야의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다. 페스티벌은 국문과 영문 버전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문화예술 현황과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아티스트들은 작품 홍보가 가능하며 나아가 국내 예술가들은 해외의 유관 기관과 단체에, 그리고 해외 예술가들은 국내의 유관 기관과 단체에 그들을 알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HAP 페스티벌〉은 기존 축제의 주요 역할인 신작 소개와 아트마켓의 역할을 유지하고 예술가의 지원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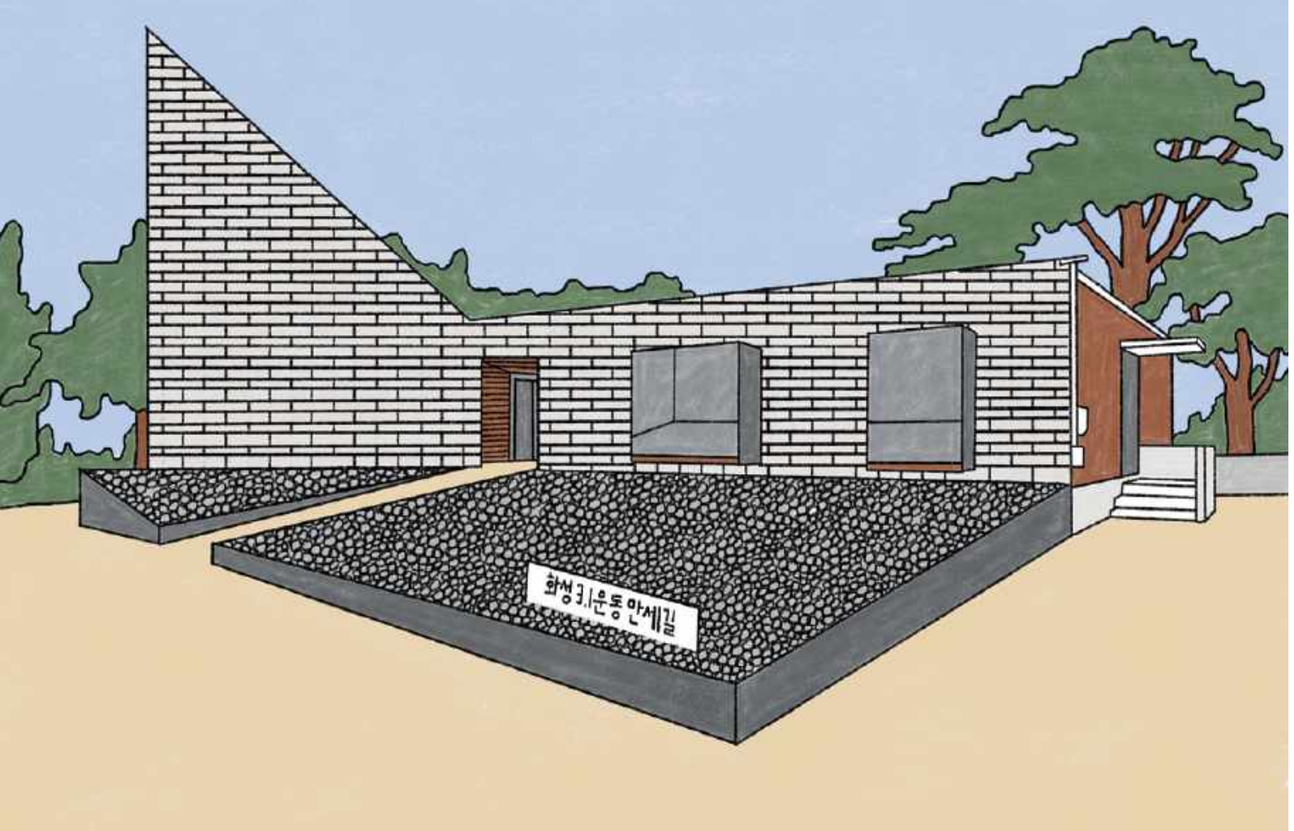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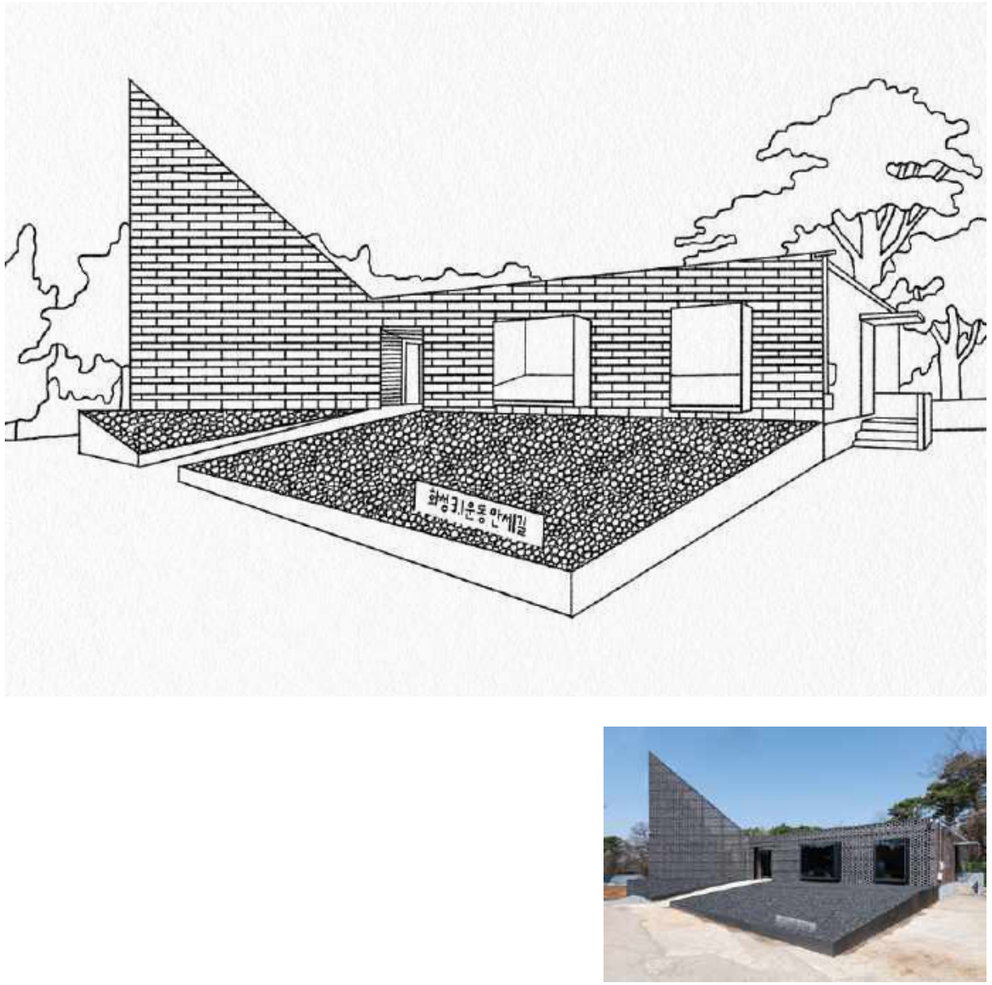
국제 교류사업 지원 역시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주관하는 '2021 교류사업 기획지원 공모' 부분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문화의 국제 교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문화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기초지자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정조 효 문화제〉에선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융릉으로 다시 모시면서 행한 '영우원 천장'이 최초로 재현되었는데, 영우원 천장은 《영조국장도감의궤》, 《국조상례보편》 등의 주요 문화재 기록을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왕실 장례 행렬 문화다. 또한, 전통의 재현을 넘어 삶과 죽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화성시만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담고 있다. 재해석된 작품의 타이틀은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로 중세 시대 이후 서양의 죽음관과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 의식에 사용되는 선창의 가사를 인용해 상징성을 더했다. 본 작품은 향후 전문 공연 단체와 시민 참여 워크숍, 뉴질랜드의 공연예술 축제와 퍼레이드 참여를 목표로 공동 제작될 예정이다.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예술 작품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는 지금,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 도시로 발돋움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화성을 그리는 방법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화성 우정읍에는 국내 유일의 3.1만세운동 재현 장거리 걷기 길이 있다. 100년 전, 2천여 명의 만세꾼들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걸을 이곳에선 자유와 독립정신이 느껴진다. 그 옆엔 만세길 방문자를 위해 만든 공간,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가 있다. 과거와 현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곳을 마음으로, 손으로 그려 보았다.

글·일러스트 곽명주





ⓒ 화성시문화재단

채색 방법

재료 아이패드 또는 유성펜, 컬러 마커, 수채 물감, 종이

1 나누기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연 배경을 나누어 생각하세요.

2 그리기
건물을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그려 주세요.

3 상상하기
벽돌이나 자갈을 그릴 때는 직접 쌓아 올리고 채우는 마음으로 그려 주세요.

4 채색하기
절벽을 연상케 하는 건물이 땅과 나무, 하늘과 조화롭게 보이도록 채색해 주세요.

CHECK

좋은 날 함께여서 더 좋은걸!
여름의 코스

바삐 걷다 달콤한 냄새에 발길을 멈추고 '나중에 꼭 와 봐야지!' 했던 곳들이 머릿속에 점처럼 빼곡하다. 시간 내서 방문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자꾸만 미뤄둔 곳들. 오늘은 마음먹고 몇몇 곳에 걸음 해보려 한다. 혼자 즐기는 것보다 둘이면 더 좋겠지, 셋이면 더 신나겠지, 넷이라면 부족할 게 없겠지 싶은 마음으로 맞잡을 손을 하나둘 떠올린다. 함께 가지 않을래? 이곳으로, 저곳으로 함께라면 더 좋을 거야!

글 이주연

군침을 부르는
비피터

친구들과 기분 내기 좋은 식당은 뭐니 뭐니 해도 레스토랑!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 오늘의 여정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여섯 가지 치즈로 만든 'Six Cheese+ Honey' 메뉴에 이것저것 곁들이면 딱 좋을 테다.

A.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4길 6-48
O. 화~토 10:30~21:00(브레이크타임 14:00~17:30), 일·월 휴무

기분 좋은 한입
소소한

오늘은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대신 홍차는 어떨까. 수제 마카롱과 스콘이 함께라면 두 배로 달콤할 것 같은 예감! 우유를 둘러 밀크티를 즐기기에도 좋은 카페 소소한에서 소소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층 도타워진 우리 사이를 느낄 수 있겠지.

A.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4길 27 102호
O. 화~일 11:00~21:00, 월 휴무

함께하는 여름 산책
동탄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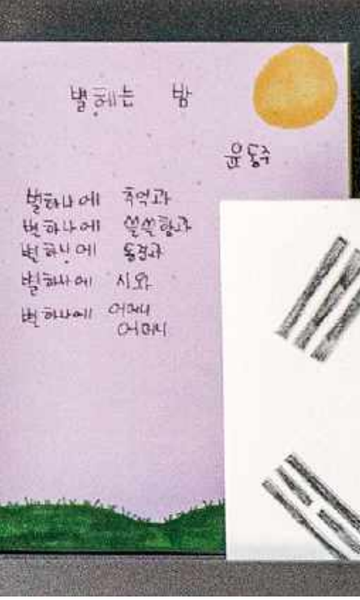
이 계절을 한층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은 단연 산책이 아닐까. 오늘은 동탄호수공원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보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자. 호수에 반사되는 여름 햇살과 해 질 녘 노을빛이 우리의 애정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줄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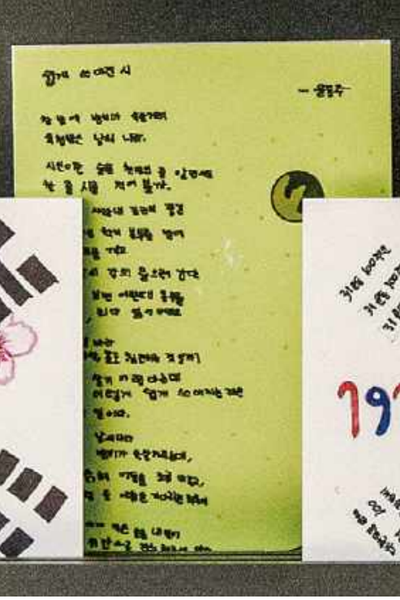
A.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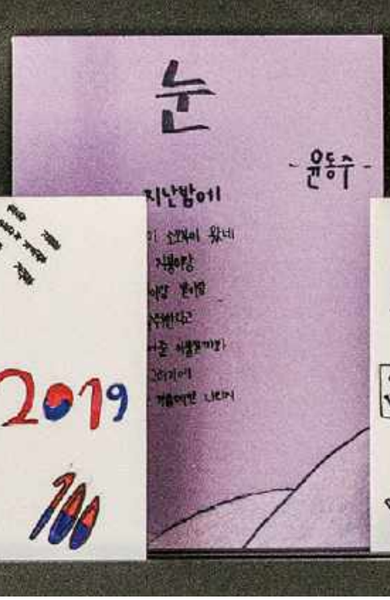
건강하고 달콤하게
아띠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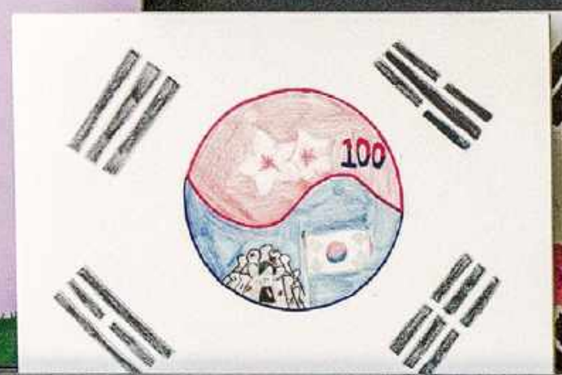
가끔 빵 속에 들어 있는 크림이나 잼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너무 달아서,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건강하고 싶을 때 피하게 되는 빵들도 기꺼이 먹을 수 있게 하는 베이커리가 바로 아띠랑스다. 수제 소스, 수제 시럽으로 채워진 정성스럽고 건강한 빵들이라면 확실히 건강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겠지! 친구 한 입, 나 두 입, 사이좋게 나눠 먹어보자.

A.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척로2나길 6-6
O. 월~토 09:00~22:00, 일 휴무









THE 하다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이혜빈 대리

PLAY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여름

LIST
깍지 끼고 걷는 걸음
우리 둘이, 우리끼리

PEOPLE
화성인의 대답
화성인의 그림

CULTURE & ISSUE
7·8월 문화소식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잊지 않는 마음,
돌아보는 오늘

드넓고 푸르른 화성 우정·장안의 땅에는 슬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길게 이어진 31킬로미터 길에 남아 있는 3.1운동의 격렬한 흔적들. 잊히지 않을 그날을 연구하고 돌아보는 일은 계속 이어진다. 사려 깊은 시선과 꼼꼼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남아 있다. 소중한 역사를 지켜가는 기록을 살펴본다.

글 김지수 사진 강현욱

화성시문화재단 시민문화국 독립운동문화팀 이혜빈

31킬로미터 길
기억하는 역사

오는 길이 참 좋았어요. 자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 보기 좋더라고요. 이곳에서의 근무는 어떤가요?
고향이 부산의 시골 동네라 이런 환경에 익숙한 편이지만,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화성은 서울과 가깝기도 해서 문화 활동을 하기에도 좋고요. 얼마 전까지 부산의 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지역이 궁금해져서 올해 초 재단에 입사했어요. 화성에서의 생활은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고고미술사를 전공했어요. 박물관에서 유물을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 일을 해왔죠. 경력을 이어 학예직으로 재단에 입사하게 됐어요. 지금은 독립운동문화팀에 속해서 고증을 통해 복원된 만세길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문화팀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만세길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해요. 행정 업무를 넘어서 모든 구성원이 학예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죠. 관련 유물을 기증받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화성의 독립운동사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과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여러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어요.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변화를 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올해로 101주년이 되어 많은 행사를 앞두었을 텐데 아쉽네요.
맞아요. 우선 독립운동문화팀에서 진행하고 있던 학교연계교육은 진행이 어렵게 됐어요. 만세길 서포터즈 모집도 진행 중이었는데 잠시 멈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새롭게 진행하는 일도 있어요. '만세길 해설사 양성'이라는 주제로 만세길 해설사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전문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모집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일반 시민분들이 만세길에 얽힌 역사를 모르고 걸으면 이 길의 소중한 가치가 흐려질까, 하는 걱정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만세길 곳곳의 땅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해설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죠. 독립운동문화팀 안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민에 의해서, 시민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돌아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했어요.

좋은 취지를 가진 프로젝트네요. 어떤 분들이 지원하셨나요?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 중 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 관광 분야, 영어 통역 관련 등등 아주 전문적인 이력을 가진 분들도 계셨죠. 해설 경험이나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만세길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으신지, 역사를 돌아보고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더욱 집중했어요. 3.1운동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잘 헤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 주실 분들을 뽑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설을 맡아주실지 기대돼요. 만세길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행사는 가급적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영상 제작을 기획했죠.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만세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 주력해서 시나리오도 개발하고 있어요. 만세길이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카이브 자료가 다소 부족한데, 이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항공 촬영과 로드 촬영을 함께 진행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만세길을 체험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 해요. 아직 시설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실사 영상 안에 그림을 삽입해 대체하는 연출도 구성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모자란 부분을 메꾸고 더불어 만세길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요.

만세길을 알리고 다듬는 일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특별한 가치를 남겨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깨우침을 얻고 있어요. 먼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되도록 사실과 반증, 유물에 남겨진 흔적을 바탕으로만 해석하는 일에 집중해 왔어요. 고증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실만을 기반하여 해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만세길을 공부하면서 3.1운동의 역사를 감정적인 부분을 모두 배제하고 해석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로 여기며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기엔 아직 이 땅에 살아 있는 반증과 역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물론 감정에 빠져 편중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당시 독립운동가분들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표현을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하기를 넘어서 과거의 먼 역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 애쓰는 과정을 거쳤죠.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역사와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무거운 역사를 전하는 일에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척 컸어요. 실제로 안내 책자를 작성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거든요. '가장', '특히'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용어를 쓸 땐 더 확실한 반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료를 연구하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감정적인 지점을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만을 바탕으로 표현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도 생겼어요.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 더욱 집중했죠. 부담감이 몰려오면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확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역사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역사인 만큼 만세길을 알리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도 생길 것 같아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화성의 만세길 개통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시설과 환경적으로 개발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교통 입지적인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돌입했어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를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다가가려 해요.

앞으로 재단에서 맡고 싶은 다른 일이 있나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업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방문자센터의 작은 전시 공간을 꾸밀 때도 제암초등학교 아이들의 작품으로 채우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거나 팀 내에서 하는 업무도 좋지만 더 넓은 환경에서 다양한 시민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활동에 눈이 가요. 더 따듯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어요.

만세길 사이의 집

차병혁(1889. 12. 11.~1967. 2. 4.)은 우정·장안 지역의 3.1운동 당일,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며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만세 시위가 일어난다는 정보를 듣고 마을의 이장이자 8촌으로, 한마을에 이웃한 차병한과 함께 아침 일찍 장안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차병혁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장안면사무소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사무 따위는 보지 말고 빨리 나와서 만세를 불러라.'라고 시키고 면장과 면서기들을 끌어내 시위에 참여시키는 등 만세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차병혁은 우정·장안 지역의 3.1운동 주도자로 체포되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부는 차병혁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차병혁의 생가는 화성 지역 독립운동가의 생가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차병혁은 3.1운동에 참여하고 서대문에서 옥고를 치른 이후 집으로 돌아왔고, 해방 이후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현재는 기와집 행랑채가 남아 있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병혁 생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안길 44-7

Play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여름

매년 겪은 여름인데, 불같은 더위는 항상 낯설고 힘들다. 이번 여름만큼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 혼자는 심심하니 가족과 아이와 친구와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방법을 소개한다.

글 김채은

가족과 함께

수박화채 만들기

© 푸드블로거 미수터육

준비물 수박 한 통, 설탕, 꿀, 사이다(탄산수)

1 수박을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속을 파낸다.
2 파놓은 수박에 설탕과 꿀을 기호에 맞게 뿌린다.
3 그 위로 사이다 혹은 탄산수를 넣는다.
4 기호에 따라 과일 후르츠 혹은 다른 과일을 넣어도 좋다.

아이와 함께

얼음 물감 놀이

ⓒ 로지앤보나

준비물 종이컵, 물감, 물, 나무젓가락(우드스틱), 테이프

1 종이컵에 원하는 색의 물감을 가득 짠다.
2 물을 3분의 1 정도 붓고 잘 저으며 물감을 푼다.
3 가운데에 나무젓가락 혹은 우드스틱을 꽂아 기울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다.
4 냉동실에 30분~1시간 정도 넣어 얼린다.
5 종이컵과 얼린 물감을 분리한 뒤 얼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TIP 물감을 적게 넣으면 색이 연하게 나올 수 있으니 듬뿍 넣는다.

친구와 함께

비즈 목걸이 만들기

준비물 줄, 다양한 색의 비즈, 고정용 테이프

1 목걸이로 만들 줄 끝에 매듭을 짓는다.
2 줄에 원하는 색의 비즈를 넣는다.
3 원하는 길이에 맞게 줄을 자른 후, 매듭을 묶는다.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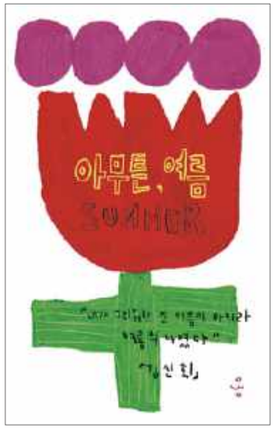
깍지 끼고 걷는 걸음
우리 둘이, 우리끼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늘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이번만큼은 먼저 손 내밀어볼까?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면 친구들은 이상하지만 재밌다는 듯 내 손을 꽉 잡아주겠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걸 보고 나누는 일, 그보다 마음 편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오늘은 친구들 손을 잡고 책방으로, 스크린으로, 미술관으로 성큼 다가가 보기로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 배로 재미있겠지.

글 이주연

BOOK

좋아하는 걸 골라 읽자
《아무튼,》 시리즈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보다 더 넓어진다. 그저 덜 휘청거리며 살면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 지내다 불현듯 어떤 것에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 일상에 밀도가 생긴다. 납작했던 하루가 포동포동 말랑말랑 입체감을 띤다. 초당옥수수 덕분에 여름을 향한 내 마음의 농도는 더 짙어졌다."

— 김신회, 《아무튼, 여름》 중에서.

"우리 오늘은 좋아하는 걸 읽어 볼래?" 좋아하는 걸 '읽다'니,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책방에 간다. 아마 많은 책방에 《아무튼,》 시리즈가 한데 꽂혀 있을 테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이라는 글자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터, 그도 그럴 것이 시리즈가 차곡차곡 쌓여 벌써 30권이 넘었으니까! 《아무튼,》 시리즈는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세 개의 출판사가 모여 펴내는 에세이 시리즈다.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엔 상상했거나 상상하지 못한 소재들이 한껏 담겨 있다. 서재, 게스트하우스, 쇼핑, 망원동, 잡지, 계속, 스웨터, 택시, 스릴러, 방콕, 외국어, 딱따구리, 트위터, 비건, 양말, 식물, 술, 떡볶이…. 누구에게나 '좋아한다'고 말할 무엇이 있겠지만 이를 책 한 권에 재미있게 담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친구들과 책방을 서성이며 마음이 닿는 단어에 손을 뻗어 나만의 '아무튼, ○○'을 가져 본다. 술을 좋아하는 어떤 이는 김혼비의 《아무튼, 술》로 술에 대한 애정을 새삼 복기하며 깔깔, 떡볶이를 좋아하는 어떤 이는 요조의 《아무튼, 떡볶이》로 떡볶이에 관한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새록새록 떠올리며 낄낄. 작고 가벼운 이 시리즈를 읽다 보면 좋아하는 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시간이 얼마나 더 근사해지는지 알게 된다. 늘 좋아해 온 것, 자연스럽게 좋아해 온 것, 죽도록 미웠지만 어쩔 수 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재미는 꼭 내 삶에 숨어 있는 보물을 캐는 것 같다. 《아무튼,》 시리즈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얼굴에 빙글 미소가 떠오른다. 친구들과 가만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른 걸 보고 있어도 같은 표정으로 웃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겠지.

MOVIE

우리는 모두 귀여웠잖아

〈꼬마 니콜라〉

© 〈꼬마 니콜라〉

"동생 예쁘지?"

"솔직히 별로예요. 대머리에다가 이도 없잖아요. 주름도 자글자글한걸요? 차라리 불독이 낫죠."

"인생 첫 기억은 언제야?" 친구들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몇 개의 숫자를 부르며 어린 시절을 복기한다. 어떤 친구는 유모차 안에서 본 독일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는 유치원 시절 친구와 다툰 기억을 소환한다. 어떤 친구는 첫 기억이 중학생 때라며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우린 서로를 모르던 오래전 어느 날로 성큼 들어갔다 나온다. 그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 한창 옛 기억에 빠져 있을 때 영화를 하나 틀었다.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던 친구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모이고 이내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오프닝 영상으로 펼쳐지는 장 자크 상페의 그림을 보고 어느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을까. 친구들과 미소 띤 얼굴로 영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열 살짜리 프랑스 소년들이 줄지어 나와 그림 같은 에피소드를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아빠가 엄마에게 잘해주면 동생이 생긴 것이고, 동생이 생기면 나는 버려진다는 불문율에 잔뜩 겁을 먹고 동생을 없애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꼬마들. 심지어 동생이 생긴 친구가 학교를 결석하면서, 모두 그 친구가 버려진 거라는 공포에 벌벌 떠는데! 이 귀여운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거나 세상 말고 모든 걸 잘 알아서 이토록 귀여운 게 아닐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같은 장면에서 손뼉 치고, 같은 장면에 좋아하고, 같은 장면에 미소 짓고, 같은 장면에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귀여워 보이는 귀중한 시간이다. 함께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 애틋함! 누구나 지나온 어린 시절을 함께 보는 건 역시 좋지 아니한가.

EXHIBITION

함께 만든 새로운 동심

〈신데렐라 유니버스展〉

© K현대미술관

"2020년 여름, 21세기 신데렐라를 만나다."

전시는 언제나 혼자가 제격이라 생각했다. 작품을 하나하나 천천히 즐기는 편이었고 특별히 좋았던 건 일기장에 기록하며 홀로 곱씹곤 했다. 종종 작품 앞에 덩그러니 혼자라는 게 아쉬웠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친구 손을 잡고 가면 그만인 일이었다. 함께 예술 활동을 즐겨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들아, 전시 보러 안 갈래?"

샤를 페로가 1697년에 출간한 동화집 속 이야기 《신데렐라》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작품이다.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다가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 조금 이상하지 않아?" 한마디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이 탱탱볼처럼 튀어 오른다. 이런 갖은 목소리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시가 바로 〈신데렐라 유니버스展〉이다.

어릴 적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읽혔지만, 지금에 와 돌아보면 어딘가 어색하고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신데렐라 유니버스展〉을 통해 21세기 신데렐라로 새로이 탄생한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마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 전시를 돌아본 이후 낯설게 느껴지는 건, 어릴 적 읽은 동화를 체험하는 테마존과 21세기 신데렐라 모습을 제시하는 섹션으로 나누어진 전시 구성 덕분일 테다. 전시를 보고 나와서 친구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신데렐라는 더는 마음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유리 구두 하나로, 왕자의 손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수동적인 그녀는 더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신데렐라 이야기를 꺼내보며 새로운 동심을 지어보는 그런 여름이다.

신데렐라 유니버스展
일시 5월 9일 (토)~8월 30일 (일)
장소 K현대미술관

화성인의 대답

당신은 요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나요?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몇 달 전 새로 알게 된 친구다. 퇴근 후 유명한 맛집에 함께 가고, 날이 좋은 날엔 근처 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한다. 계절별로 함께하는 친구가 달라지는 게 신기하면서도 그게 참 자연스럽다. 화성인은 요즘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궁금하다.

에디터 김채은

윤이나 | 주부

곧 세상으로 나올 아기

2020년 2월, 5년 만에 임신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까지 외출을 조심하고 있다. 요즘은 귀하게 얻은 배 속 아기 '럭키'와 함께 음악을 듣고 책도 보며 시간을 보낸다. 지난날, 아이를 가지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도 가보고 시험관 시술도 해봤지만 여러 번 실패했다. 운동, 식단 관리 또한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정말 속상했지만, 원인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답답한 마음을 들게 했다. 하지만 남편과 서로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고 기다린 만큼 좋은 일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진급 소식과 동시에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온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과 나는 해외여행도 꾸준히 다니면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기 럭키가 찾아와 정말 기쁘다. 어떠한 일이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같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배 속에서 건강하게 커주고 있는 럭키에게도 고마운 마음뿐이다. 나는 어느새 6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비 엄마다. 이 글을 보는 분에게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면 분명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만 가득하길 소망한다.

정윤성 | 유통 회사 사무직

껌딱지 친구 루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강아지 루이다. 껌딱지처럼 늘 내 옆에 붙어 있고, 조금이라도 만져주지 않으면 앞발로 내 손을 긁는다. 잘 때도 엉덩이를 내 얼굴에 딱 붙이고 자는 습관이 있다. 껌딱지 친구 루이는 지금 열두 살 노령견인데, 올해 들어 부쩍 기운이 빠져 보여서 걱정이다. 루이가 조금만 아프고 밥을 안 먹고 배변 활동을 못 하기라도 하면 내 마음은 난리가 난다. 루이가 스무 살까지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나의 첫 강아지이자 마지막 강아지 루이의 건강을 함께 응원해 주길 바란다.

이현대 | 연구원

와이프와 배 속에 있는 아기

항상 와이프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다가 와이프가 임신해, 아기와 셋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퇴근 후 자기 전에 아기에게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결혼할 때는 결혼이 끝인 줄만 알았는데,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니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와이프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고 행복했다. 한편으로는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이 살짝 부담되면서도, 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가 되어라 하는 뜻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뚝뚝하고 부끄러움 많은 내가 태교 책도 직접 읽어주고 배 속에 있는 아기에게 말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배 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빠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늘 와이프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중에 태어나는 아기가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싶다.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양혜민 | 주부

겨울에 찾아온 아들

눈이 펑펑 오는 겨울, 작디작은 아기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운 네 살 장난꾸러기와 함께 있으면 하루가 어찌나 빠른지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새 4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지난날 돌이켜보니 내 몸 힘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예쁜 행동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뿐이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은 만큼 이제는 아들의 작은 행동, 말, 표정까지 모두 기억해야겠다. 아들과 같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가끔은 재촉하고 서툴게 대할지라도 함께하는 매일이 서로에겐 처음이니 늘 새로운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항상 부족한 엄마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고 생각해 주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겠다.

임후금 | 주부

예쁜 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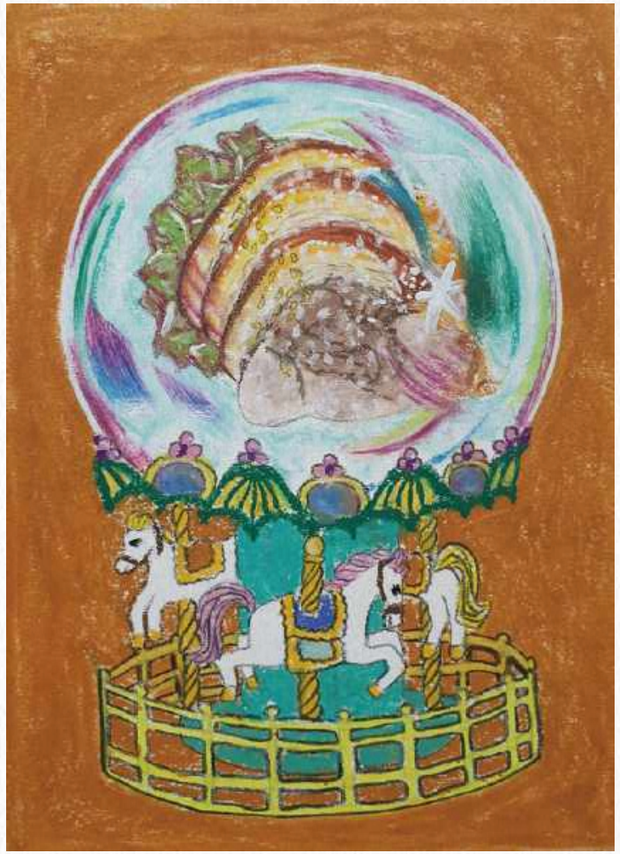
딸이 얼마 전 시집을 가더니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화사한 꽃 화분 몇 개를 사고 받침대까지 사서 이리저리 꾸미고는 시시때때로 내게 사진을 찍어 보낸다. 꽃기린이 빨갛게 피었다는 둥 물을 잘 주었더니 야자나무가 쑥쑥 자란다는 둥. 그러면서 항상 이 말을 덧붙인다. "엄마! 정말 예쁘지?" 나랑 함께 살 때는 화분에 물 한 번 준 일도 없으면서 신혼집이라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나 보다. 나는 그 꽃들에게 말을 건다. "너희들은 우리 딸과 함께 사는 가족이야. 싱싱하게 자라고 예쁘게 피어서 우리 딸 매일매일 웃게 해주렴."

화성인의 그림

가족과 함께한 당신의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가요?

몇 년 전, 가족과 떠난 여행이 내 기억 속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낯선 곳에 종일 같이 있어보니 새로운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문득문득 그 추억을 떠올린다. 화성인이 기억하는 가족과의 추억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

에디터 김채은



박근영 | 주부

가족(가슴 속의 족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몇 개 되지 않지만, 딱 하나 크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놀이공원 가는 길에 아빠가 직접 만든 족발이다. 내 인생 최애 족발을 놀이공원 추억의 비닛방울 안에 그려보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빠는 백종원 선생님만큼 대단한 요리연구가였던 것 같다.

박명희 | 주부

두 아이와 여행 같은 산책

나와 제일 오래 붙어 있는 소중한 딸, 아들 로나와 로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효리 'U-Go-Girl'처럼 아이들의 옷을 고민해 입히고, 나는 어두운 톤의 옷과 모자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떠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껌딱지들과 함께하면 기분 좋은 여행이 된다. 오늘도 맛있는 간식과 음료를 싸 들고 어딘가로 떠나봐야겠다.

화성시문화재단
7·8월 문화소식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제공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릴레이
아무공연 챌린지

2020 찾아가는 온라인 공연장
화성, 그곳, 그리고..

코로나19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요즘,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 시민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모두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아무공연 챌린지'를 선보였다. 아무공연 챌린지는 공연이 우리의 일상 속 아무 곳, 즉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의미로, 화성 시민의 공연 영상 중 선정된 영상들이 한 편으로 모여 완성된다. 공연기획팀은 시민들의 영상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모집했으며, 모집된 영상 중 5편을 선정하여 공연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초등학생의 감미로운 기타 연주, 부녀의 멋진 합주, 끼가 넘치는 자매의 댄스 등 생활 공간 속 특별한 공연으로 일상을 빛나게 만드는 시민들의 모습은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공연기획팀 1588 5234

올 하반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온라인 공연이 쏟아진다. '2020 찾아가는 공연장'에 선정된 공연 단체들은 화성시의 관광 명소를 찾아가 그곳과 어울리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진 지금 공연은 촬영 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시간상, 거리상의 문제로 실력 있는 전문 공연 단체들의 공연을 현장에서 만나기가 어려워 아쉬워하던 시민들에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료 콘텐츠가 제공되니 반가운 소식이다. 공연뿐만 아니라 제부도 워터워크, 화성3.1운동만세길 등 화성시의 명소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매주 화성시를 랜선 여행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다.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5

화성 독립운동의 중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인스타그램 개설

슈퍼 루키와 함께 만드는 열정의 도시, 화성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이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의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jeamri_415)을 개설한 것이다. 앞으로 기념관은 이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책에 따른 기념관의 소식과 전시, 교육 및 행사 같은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할 예정이다. 집에서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보드게임 '사강시장 가는 길'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화성 독립운동가 페이퍼아트 만들기 영상' 같은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팔로워 중 추첨을 통해 핸디 선풍기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앞으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해시태그 이벤트, 챌린지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31 366 1604

화성 시민들이 직접 뽑는 밴드 경연대회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가 올여름에도 화성을 뜨거운 열정의 도시로 만든다. 3회 차를 맞은 올해 대회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즐거운 무대를 만들고자 뉴트로 콘셉트로 구성해 무대, 공연 장소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의 공연도 8090 음악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대회는 온라인 접수 후 전문가 심사, 현장 최종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선 1~3위 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뮤직비디오 제작 및 음악 채널을 통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고, 본선 진출 12팀을 선발하는 전문가 심사는 영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본선 심사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온 국민이 영상으로 평가해 뽑도록 하고, 최종 현장 결선은 화성시 관내 공원에서 드라이브 콘서트로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5

축제 및 문화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화성시문화재단 x 오산대학교

집에서 즐기는 미디어 채널

마스TV 새 단장

화성시문화재단은 오산대학교와 지난 5월 29일 축제와 문화교류 및 공동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재단과 대학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역할과 동시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학협력이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문화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오산대학교는 인재들의 실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 상호 간의 활발한 업무 교류를 통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사무국은 이전에도 관내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대전보건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축제 등의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축제기획팀 031 290 4614

화성시미디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마스TV'가 새단장했다.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시작된 이 채널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채널 내 '미디어 커뮤니티'는 미디어 강사들이 제작한 화성 리뷰, 3D펜 그리기 등 톡톡 튀는 영상을 소개한다. '방구석 키즈 스피치'와 동화 작가가 들려주는 '새 학기 친구 사귀기 비법!'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문화!수목금토일'은 직원들이 직접 녹음한 '코리요의 코로나 예방수칙'을 시작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이벤트 참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농산물 꾸러미 언박싱 이벤트' 영상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화성시문화재단 사업 및 직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공개하며 유화 그리기, 도마 만들기 등 교육 활동 영상의 결과물들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미디어센터는 마스TV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미디어팀 031 8003 6474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화성시문화재단이 기획하는 공연, 행사, 축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대응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은 준비해왔던 사업들을 선보이고 시민들을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도서관은 일부 자료실을 재개하고,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를 축소 운영했으나 수도권 감염 확산이 일어나 다시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야외공연장 공연 '2020 ARTS STAGE: 숲, 쉼'의 〈텐콕 콘서트〉가 아쉬움 속에 연기를 결정했으며,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에 전시 예정이었던 태극기 아카이브展 〈여럿의 숨을 모아〉, 지난 6월 진행예정이었던 〈THE H Concert〉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문화재단은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합니다. 공연기획팀은 한 마음으로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해 마음을 전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지를 받았습니다. 또, 〈숨은 찾공 찾기〉와 〈굿 페이스 화성人〉 캠페인으로 화성시민들과 거리에서 만나며 웃음 가득한 게릴라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 시설 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출입 통제, 정기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바람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루 빨리 문화예술로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숨은 찾·공 찾기

공연기획팀 덕분에챌린지

REVIEW

《화분》 46호를 만든 사람들

허명범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여름날. 문화예술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하나둘씩 새로운 실험 예술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작은 움직임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면 지친 일상에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해요.

차영은
마스크도 답답한 계절, 여름이 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19로 멈춰있네요. 코로나 블루를 《화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차유나
지난 호에 실린 '틀린그림찾기'가 반응이 좋아 힘이 났어요! 독자분들이 느꼈던 틀린그림찾기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문화사업과 함께 틀린그림찾기책을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채은
이번 호의 주제는 '함께'였어요.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번 호를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다은
독립운동, 식민지, 전쟁…. 모두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이야기에 가까이 닿아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번 호에서 다루는 몇몇 기사를 통해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어요.

이주연
친구보단 혼자가, 혼자보단 가족과 있는 게 좋아서 약속이 생기면 도망갈 궁리부터 했어요. 엄마 치마폭에 숨는 아이처럼 눈만 빼꼼 내놓곤 얕은수만 쓰던 나를 반성하게 만든 건 코로나19가 삶을 집어삼키면서부터였죠. 약속을 피해 다닌 게 얼마나 과분한 사치였는지 이젠 알아요. 보고 싶은 얼굴들을 헤아리며 앞으로는 친구들과 성실하게 만나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코로나19야 제발!

김지수
오늘날 산과 들로 둘러싸인 만세길은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이에요. 하지만 오래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떠올리면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는 없죠. 그때의 지나간 역사, 빛바랜 투쟁을 잊지 말아야 해요. 길게 이어진 만세길을 지나며 우리 함께 기억해요!

윤원정
이번 여름 휴가는 멀리 떠나볼까 했는데 코로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여름 나기 문화 데이트'에 소개된 공방을 찾아가 보려고요!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 8015 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만세길방문자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문화시설
노작홍사용문학관
로얄앤컴퍼니 아울렛
모두누림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유앤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도서관
남양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카페
다락
다원
달팽이그림책카페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뜰
카페 그루비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작은 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래작은도서관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온라인 구독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개인 구독자를 위한 배송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이드

화성시문화재단

검색창에 **화성시문화재단** 또는 **hcfart** 를 검색하세요!

틀린그림찾기

총 6개의 틀린부분을 찾아주세요!

다음 사진에서 다른 점 **6개**를 찾아주세요! 6개를 다 찾고난 후,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매거진화분 #틀린그림찾기이벤트*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2020.8.30 까지

2020. 8. 31 화성시문화재단 SNS에서 정답 공개

© 고양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08.01~2021.7.30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화분》담당자

1 8 4 5 9

화분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분

VOL.46 WITH | 2020 JULY & AUGUST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최형오
편집국장	서관석
편집팀장	허명범
기획·편집	차영은, (주)어라운드
디자인·인쇄	(주)어라운드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 8015 8112
팩스	031 8015 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인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뮤지션 김창기

34
FEATURE
여름 나기 문화 데이트

60
PEOPLE
화성인의 대답 화성인의 그림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ISSN 2671-6445